



전라지역

은행나무

## 애절한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   |      |            |   |                   |
|---|------|------------|---|-------------------|
| ✳ | 지정번호 | 광주-1982-36 | ✳ | 전북 고창군 고창읍        |
|   | 지정년도 | 1999       |   | 석정2로 173          |
|   | 관리기관 | 고창         |   | 35° 25' 52.20" N  |
|   | 수령   | 430년       |   | 126° 44' 27.79" E |
|   | 수고   | 21m        |   |                   |
|   | 흉고둘레 | 4.6m       |   |                   |

보호수 은행나무가 있는 곳은 석정리의 외정마을이었다. 돌이 많고 산으로 둘러싸인 외정마을은 석정리 외곽의 자연마을이다. 온천단지가 조성되면서 마을 주민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은행나무는 조양 임씨 세거터에 있다. 온천단지가 알려지면서 외정마을을 찾는 것보다 석정온천 입구를 찾는 것이 더 쉽다. 은행나무는 암그루와 수그루가 아주 가까이에 있으나 붙어있지 않다. 죽어서도 부부가 된 전설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의 주인이었던 임도령은 한양 참판택 딸과 약혼한 사이였는데, 임도령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따로 있었다. 천민의 소사이었다. 임도령은 무과에 급제하면 결혼하자는 맹세로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소사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 미투리(신발)를 만들어 임도령에게 주었다. 하지만 임도령은 임무 수행 중에 전사하였고 소사는 유품에서 미투리를 발견하고 통곡하다 숨을 거두었다. 얼마 후 임도령이 심은 수그루의 은행나무옆에 소사의 혼이 담겨 있는 암그루가 자라게 되었다. 죽어서 부부가 된 임도령과 소사는 지금까지 부부의 도를 지키듯 마주하여 해마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곳의 보호수 은행나무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에 한 부부가 외정마을에 살았다. 부부는 서로 사랑이 매우 깊었다. 아내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날부터 남편을 기다리며 은행나무 아래에서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다. 남편은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을 기다리며 은행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아내는 남편을 만나자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내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마을에 은행나무 2그루를 심었다. 이 은행나무는 마을 주민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지금도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은행나무는 높이가 21m 정도이고, 큰 개체의 가슴높이 둘레가 460cm 정도가 되는 거대한 나무이다. 2그루 나무는 마주하여 서 있으며, 가까이가면 마치 입맞춤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 이색적이다. 나무나이가 430년으로 다른 고목의 은행나무에 비하여 오래 살고 있는 편이 아니지만 온천단지가 있어 방문객이 많고 잘 조성한 공원 언저리에 있으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